다국적기업 불공정계약 심화

미원유화, PO시장 호조에도 불구 공급선 다변화 전략 차질

PO시장의 안정성장에 따른 국내 수입기업의 공급선 다변화 전략이 다국적 기업과의 계약 마찰로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PO시장은 수요면에서 91년 7만7810톤, 92년 8만4429톤,93년 9만여톤으로 매년 5~6%의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3년 PO공급량은 생산 11만 2000톤, 수입 2만톤으로 수입물량은 92년 9만3000톤에 비해 1만 9000톤이상 증가하는 등 수요를 감안, 비교적 안정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가격면에서도 93년 7월 내수 기준 가격인 톤당 80만 9000원 수준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어 공급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격안정세가 유지되는 등 수출에 따른 해외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함께 국내 수입기업의 공급선 다변화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는 호기를 맞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이같은 시장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입기업인 미원유화의 경우는 수입선인 DOW와의 계약과정에서의 불합리성으로 인해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급의 다변화를 의욕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등 국가 산업 전체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2/4분기 현재 PO수입물량은 월 1800여톤 정도이며, 유공옥시로 부터 공급받은 물량은 월 700톤으로 93년에 비해 월 600~700여톤이상 증가를 보이고는 있으나 안정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국내 생산기업과의 구매전환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DOW로부터의 실질 수입 가격이 930달러선을 웃돌고 있는데 반해 유공옥시의 내수가는 톤당 910달러선을 유지하고 있는 등 적절한 구매전략이 시급한 실정인데도 DOW로부터의 PPG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악조건에 묶여 쉽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해당기업의 관계자들은『PPG기술이전이 완료되는 95년까지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PO의 수급 파트너를 바꿀수 없다는 악조건에 묶여 시장활동에 위축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PO의 절대적 수요처가 PPG임을 감안, 계약과정에서 다소의 불합리한 점은 이해할 수 있지만 기술이전에 따른 입장차가 뚜렷해 95년이후에도 공급선 변화가 불투명하다』는 등의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대해 업계에서는『다국적 기업이 시장변화가 상대적으로 빠른 한국내 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공식적인 계약외에는 수급문제에까지 관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그것은 결과적으로 한국내 파트너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자충수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미원유화는 국내 PO시장의 안정화에 대비 유공옥시측과 이미 공급라인을 연결하는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급선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저널 1994/6/6>